

기획

치유와 상상,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공간

만나고 싶었습니다

성별 다양성과 젠더통합리더십이 필요한 이유

100인 기부 릴레이 2017 이금미와 주자영단



과다
드러나
기
의
상
을

2017년 여름호 No.131

www.womenfund.or.kr

고마운 '서프러제트' 선배들

나는 참 많은 것을 영화에서 배운다. 여성 참정권의 역사에 대해 무지하던 내게 영화 <서프러제트>는 감동을 넘어 놀라운 충격이었다. '서프러제트'(Suffragette)는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을 가리키는 말로 20세기 초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영화의 주인공은 그 당시 참정권 정치운동을 이끌던 여성사회정치연합의 리더 에멀린 팽크허스트가 아니라 평범한 한 여성노동자다.

1912년 런던 - 세탁공장에서 일하는 모드 와츠는 한 남자의 아내요 어린 소년의 어머니로서 고된 육체노동과 남성 사장의 성희롱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며 열심히 살아간다. 모드는 어느 날 퇴근길에 한 여자가 아름답게 장식된 쇼윈도에 몸을 던져 깨부수는 걸 목격한다. 그때까지 거리에서 연설을 하거나 의원들에게 법안을 호소하는 등 평화적인 방식으로 참정권 운동을 이끌었던 여성들이 그들을 무시하는 대중과 공직자, 정치인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 행위를 위한 행동에 나섰던 것이다.

이 대열에 합류한 모드는 주위의 비웃음을 사고 남편으로부터 이혼까지 당해 아들조차 못 보게 되지만 오히려 여성의 인권에 대해 더 큰 깨달음을 얻고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어 열정적으로 활동한다. 그러나 세상의 관심을 얻기 위한 이들의 과격한 저항조차 기록권 언론에 의해 철저하게 묵살 당하고, 이에 한 여성은 최후 수단으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경마대회에서 달리는 말 앞으로 돌진, 자신의 몸을 던진다. 그 충격적인 장면이 찍힌 사진이 신문에 실리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이 여성의 처절한 비명에 담긴 절실한 주장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

이 영화에서 보듯 앞서 간 수많은 여성들이 가족과 이웃들에게 배척 받고 가정과 일터에서 내쫓기고 경찰의 곤봉에 얻어맞고 구치소와 감옥에 갇히고 하나뿐인 귀하디 귀한 목숨까지 바치면서 얻어낸 여성 참정권 덕에 1912년 그날로부터 1백년이 지난 오늘날의 세계는 많은 변화와 진전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는 올해 총선에서 여성 국회의원이 223명 당선돼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미 2년 전에 캐나다 트뤼도 총리는 장관의 성비가 남녀동수인 이유를 질문 받고 "지금이야 2015년이니까"라고 명쾌하게 대답해 세계 여성들의 박수갈채를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물론 현재 여당과 야당 2곳 당 대표가 다 여성이어서 같이 만나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신문과 방송 뉴스를 장식하기도 했다. 그러나 피땀 흘리는 아무런 노력 없이 해방과 더불어 남녀 동시에 똑같이 참정권이 보장되어 고마운 줄을 몰라서 그런가? 남성도 아닌 여성 국회의원이, 그것도 제 1 야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라는 이가 학교급식실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동네 아줌마'라고 지칭해서 비난을 사고 있는 게 우리 여성 정치의 현주소라면, 1백 년 전 '서프러제트' 선배들에게 참으로 면목이 없다. ♡



이경순
한국여성재단 이사, 전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말들에게 희망을 2017년 여름호 No.131

그린디자이너 이경래님의 사람과 공간,
그리고 나눔 이야기(사진 김선작가)

후원

농협 369-17-005283
국민 079-01-0405-971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kwomenfund

트위터

twitter.com/womenfund

해피로그

happylog.naver.com/womenfund.do

Contents

사립문

- 2 고마운 '서프러제트' 선배들 _ 이경순 한국여성재단 이사
전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기획 | 치유와 상상,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공간

- 4 뒤돌애(愛) 가면 뭔가 배울 수 있어
6 삶을 예술로, 예술을 일상으로 '살롱드마고'
8 인문학카페는 삶에 대해 질문하는 공간

이슈와 현장 | 한국여성의전화 센터 30주년 기념식 취재기

- 10 보호에서 자립으로, 새로운 30년을 시작하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 12 그린디자이너 이경래의 삶, 사람, 공간
14 성별 다양성과 젠더통합리더십이 필요한 이유

여성단체와 함께 말하다

- 16 유쾌하게 비틀어 성평등을 말하다, 시원한 사이다전(展)

18 100인 기부챌레지 2017 이금이와 주자명단

재단소식

- 26 재단활동 2017년 5~6월
28 기부자명단 2017년 5~6월
30 수입과 지출 2017년 1~6월

- 31 1%나눔캠페인 1% 나눔이 모여 100% 희망이 됩니다

뒤뜰애(愛) 가면 뭔가 배울 수 있어

요즘은 카페에서 커피만 마시고 서점에서 책 구입만 하지는 않는다. 한 공간에서 다양한 인문학적 풍경이 연출된다.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다스리는 요가와 치유의 명상, 그림으로 글로 나를 표현해보기도 한다. 그리하여 본연의 자신을 찾으며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힘을 기른다. 생각의 힘도 자란다. 무엇을 할까 어떻게 만날까를 고민하며 만들어진 공간들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춘천여성회가 있는 춘천시 후평동은 취미를 위한 강좌나 교육들이 동사무소 등에서 열리곤 하지만 주로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곳이고 3~40대 여성들이 관심사와 딱 맞물리는 곳을 찾기 힘든 동네였다. “춘천은 외지인이 비교적 많아요. 자신의 생각을 잘 드러내지 않지요. 하지만 이곳에 정착한 3~40대 여성들은 자녀들이 사교육에 휘둘리지 않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꿈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춘천여성회에 오면 어느 정도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세요.” 이선미 춘천여성회 사무처장이 이곳의 특성을 설명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조합원을 모아 협동조합 마더센터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하게 된다. 공정무역 북카페, 조합원교육 등 다양하고도 크고 작은 모임이 수시로 열렸고 모임이나 교육을 위한 안정적인 공간이 절실했다.

당힐 때 나머지 세상

여성들의
아름다운
아름다운



여성회가 입주해 있는 건물 지하에 마침 적당한 공간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수리와 리모델링을 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해서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만 있었다. 그러던 차에 지난 2015년 한국여성재단과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의 공간문화개선사업 공모에 지원을 하여 선정되는 기쁨을 누렸다. 칙칙하고 어둡던 공간은 교육기자재와 책걸상, 수납공간 등이 마련된 새 공간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뒤토크라고 부르며 하고 싶은 모임을 마음껏 만들었고 수시로 이곳에 모였다. 마더센터는 130여 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현재 300여 명 가깝게 조합원이 가입했고 벼룩시장이며 다양한 소모임이 북카페와 뒤토크에서 열리고 있다. 세 명 이상이면 언제나 따로 모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춘천여성회의 회원교육으로 성평등이나 비폭력대화 등 기본교육들이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심지어 동네 학원의 중국어강좌반 졸업발표회를 위해 뒤토크

룸에 대관분기가 들어오기도 했다. 뒤토크에는 춘천여성회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다. 덕분에 작년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격증 마련을 위해 사회적 기업인 에듀머니와 함께 어린이경제지도사교육과정을 개설하기도 했다. 여성들의 욕구와 성장에 맞춘 인문학모임, 취미, 건강한 시민교육, 먹거리,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소모임이 밤낮없이 열렸다. “여성글쓰기모임은 시간을 거둬할수록 빛이 나요. 시를 쓰게 된 분도 있고 요즘 베스트셀러인 <82년생 김지영>을 읽으면서는 다들 내 얘기 같다고 공감하기도 했어요. 아이를 위해서만 최선을 다했던 여성들은 그동안 어렵게만 느꼈던 여성학 입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춘천여성회와 마더센터를 찾는 지역 여성들의 성장과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 뒤토크가 힘을 주는 공간으로 계속 남아있길 기대한다. W

글 박진영(홍보팀)

삶을 예술로 예술을 일상으로 '살롱드마고'

글을 보내준 달리는 지리산에서 지역독립잡지 <지글스>를 펴내고 있는 문화기획자 달지기(윤영진)이다. 여성전용 창작생활공간 살롱드마고를 운영하고 있다.

이름에서 뭔가를 상상하게 만드는 매력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이름 지은 이유는?

'살롱(salon)'은 응접실이라는 뜻인데요, 근대 유럽 특히 프랑스에서 예술가, 문학자, 철학자들이 모여 생각을 나누고 자유롭게 토론하던 공간으로 알려졌지요. 한국에서는 유흥업소나 미용실 이름으로 많이 쓰이지만요, '마고'는 지리산을 상징하는 여신 이름입니다. 딸 여덟을 낳아 무당으로 길러서 팔도로 보내 민속을 다스리게 했다는 설화가 있는, 영험한 여성 산신이지요. '마고의 응접실'이라는 의미의 '살롱드마고'는 생명력과 힘을 가진 여성들이 모여 창조적인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었습니다.



사진 / 권영철, 지글스, 달지기

여성전용 생활창작공간을 표방한 이유는?

처음 문화기획단을 시작할 땐 공간이 없었어요. 언젠가 공간이 생기면 '살롱드마고'라 불러야지, 하고 이름만 지어놓았어요. 그런데 이름을 짓고 얼마 후 거짓말처럼 공간을 얻게 되었어요. 사실 바로 다음 달 월세 낼 돈도 없었는데 어느새 2년째 지내고 있어요. 동료로 일하고 있는 달지기 이리가, 그 무렵 "혼자 쓸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했었거든요. 집엔 파트너가 있고 마을카페 같은 곳엔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농촌에서 여성에게 독립적인 공간은 너무 한정되어 있거든요. 저도 그 말에 공감했고 지역 여성뿐 아니라 외지에서 온 여성들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무르며 활동하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여성 전용'이라는 필요는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금남 구역'은 아니에요. 남성들도 관심이 있고 우리의 활동 목적과 맞는다면, 공간 탐방과 프로그램 참여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해주세요

우선 살롱드마고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달지기들, 활동가 개인 각자가 관심 있거나 하고 싶은 일들이 중심이 됩니다. 모든 사업에서 활동가들이 기획, 진행, 강사까지 여러 역할을 다중으로 맡아 하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동기부여 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역 여성들의 필요와 욕구를 반영합니다. 2015년 말에 문화기획단 단체 활동에 관한 마을 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가장 선호가 높은 교육이 '성인 여성 대상 미술'이더라고요. 올해 미술 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 중인데 실제로 반응이 정말 좋고, 벌써 내년엔 대한 계획도 나오고 있어요. 살롱드마고에서는 농촌 여성들이 일상에서 창조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기표현의 경험을 쌓고 자신의 가능성을 긍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계속 열리는 것 같아요. 여성들이 모여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일어나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이 공간을 거쳐 간 여성들의 모습은?

작년 여름 리모델링을 하고 나선 환경이나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살롱드마고'의 색깔이 붙어난 느낌이라고 칭찬도 받았고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의 경우엔 집중도가 정말 높아요. 가끔, "우리 말도 하고 좀 쉬면서 하자~"며 작업 시간에 환기를 시켜야 할 정도로요. 아마 가정의 의무로부터 '탈출'한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것을 배우고 누려야 한다는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문화예술 활동이 처음이라는 분들이 많은데 같이 작업해보면 문화기획단의 슬로건 "살을 예술로, 예술을 일상으로"처럼 누구나 작가가 아닐까 생각이 들만큼 다들 멋진 개성을 표현하세요. 그렇게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고, 문화기획단에서 발행하는 출판물에 협업하기도 하고, 작가로 데뷔한 분도 있고 마을에서 강사가 된 분도 있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만의 창조성을 꽃피우고 새로운 삶을 여는 일련의 과정을 보노라면 판을 만든 사람으로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살롱드마고의 미래

단체도 그렇고 공간 운영도 아무런 자본 없이 시작해 지금까지 끌고 온 게 기적인거 같아요. 올해는 공간 운영비에 대한 고민이 커서 연초부터 '별지기'라는 후원회원을 받기도 했지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죠. 다만 바라는 게 있다면, 이곳에 머물거나 오가는 누구나 편안하고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농촌에서 여성들을 위한 이런 공간이 굉장히 드문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들에도 영감을 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W

정리 백진영(홍보팀)



인문학카페는 삶에 대해 질문하는 공간

글을 보내준 휴마는 춘천 인문학카페 36.5도 운영자, <당신이 계속 불편하면 좋겠습니다>의 저자이다. 4년 이 동안 카페활동을 통해 만났던 사람들, 상상하고 만들어갔던 것은 무엇인지 들려주었다.



춘천만 해도 대학가에 서점이 하나둘 사라져서 이제는 한 곳도 없어요. 술집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환경에서 자연스레 다른 삶의 가능성, 다른 질문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류의 가치가 아니라 다양한 가치를 질문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바랐는데, 어느 날 그런 공간을 우리가 만들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독서모임을 하던 청년 네 명과 마음이 통해서 협동조합 형태로 카페를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오가면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다양한 가치에 관심을 갖고 스며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또 제 일상과 노동이 분리되지 않는 일자리를 직접 만들어가고 싶다는 생각도 컸습니다.



사람에게 일어나는 내적 혁명을 함께 경험하다

주로 문화예술(미술, 사진, 영상, 글, 작곡, 연극 등) 소모임을 통해 개인의 언어를 찾는 일을 도모했어요. 그렇게 나온 글, 사진 작품은 독립출판물로 제작하고, 미술 작품은 전시회로, 연극과 작곡은 공연으로 연결했어요. 모임 사람들과의 감응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목소리가 들리게 하는 일이 저희가 생각하는 '개인을, 일상을 정치화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계간진지>, <젊은여자>를 비롯해 총 12권의 독립출판물을 냈어요. 또 매달 세미나스트, 작가 분들을 모셔서 강연회를 열고, 영화 상영회, 인디밴드 공연, 아침운동 모임, 프리마켓 등을 기획하고 진행했어요.

가장 인기 있었던 활동은 글쓰기 모임이었어요. 청년, 지방대, 성별 등으로 개개인이 범주화되는 세계에서 대다수는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걸 두려워해요. 글쓰기 모임을 비롯한 예술 활동으로 자신을 이야기하다 보면, 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나 자신 뿐이라는 당연하지만 소중한 사실을 알게 돼요. 스스로를 설명할 수 있을 때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내적 혁명을 함께 경험하며 울컥할 때가 많아요. 공무원을 준비하겠다는 청년이 모임이 끝나갈 때에는 공무원은 부모님이 원해서였다며 학교를 멈추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해보겠다고 삶의 행로를 바꾸는 모습을 봤어요.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낄 때 멈추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은 자신과 세계를 들여다보는 시간 속에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인문학은 제가 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질문을 던지는 힘'을 주었어요. 소위 정상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정말 정상인가? 그 기준은 무엇일까? 돈을 잘 버는 것과 잘 사는 건 같을까? 금기를 뛰어넘는 질문은 나를 둘러싼 사회적 규범, 타인의 시선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었어요. 자주 절망하지만, 자주 희망하기도 하며 흔들리며 살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 한 점에서 다시 만나는 날을 꿈꾸며

한 공간, 단체가 문을 닫게 되는 데에는 한 가지로 설

명할 수 없는 무수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역시 사업 경험이 없는 (게다가 수익을 꼭 내야한다는 의지도 별로 없던) 청년들이 운영하다보니 사실 운영하는 4년 동안 적자를 면하지 못한 달이 거의 없었어요. 무엇보다 함께 활동했던 팀원들과 제가 변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카페라는 한 점에서 더 머무르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 마음이 통해서 카페36.5에서 만나 4년 간 활동하며 함께 성장했지만, 이제는 각자의 활동을 향해 걸어가게 되었어요. 주역타로를 본격적으로 공부하며 서울에서 활동하게 된 검은새, 퀴어 활동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로 한 발 나아가는 조재, 적극적으로 글을 쓰기로 한 칼리, 그리고 물리적으로는 거리가 생겼도 저희는 앞으로도 '함께' 활동할 거예요. 저는 포항으로 이사해서 다시 공간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말을 글과 그림, 노래를 통해 하고 싶고 앞으로도 사람들을 연결하는 계기를 만들고 싶어요.

목소리가 목소리를 부른다

<당신이 계속 불편하면 좋겠습니다>라는 책은 저의 20대를 관통해왔던 일상의 폭력, 저라는 인체적인 사람을 스스로 말한 책이에요. 제 책을 읽고, 뱉지도 삼키지도 못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할 용기가 생겼다는 피드백을 받을 때 가장 기뻐요. '목소리가 목소리를 부른다'고 책에서 말했거든요. 아직 말해지지 못했던 소수자의 목소리가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가 아닌, 각자의 입에서 나오고 그것이 들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요.

카페활동에 관심이 있다면

공간을 운영할 목적이 분명하고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결대로 운영해나가고자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격이 집어질수록 누군가는 저희를 피하기도 했지만, 지역을 망라하고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모두와 어울려야 한다는 생각보다, 누구의 입장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는 공간일지 고민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W

정리 백진영(홍보팀)

보호에서 자립으로, 새로운 30년을 시작하다

지난 6월22일, 을지로입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한국여성의전화(이하 여성의전화) 부설 쉼터
개소 3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쉼터 30년을 기억하는 많은 이들이
무대에 올라 감회와 소감,
그리고 축하의 공연을 펼쳤다.
참석자들은 웃기도 했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1986년 여성의 전화 면접상담을 통한 피해 여성들의 설문

90%

이상의 여성이 폭력을 당한 후
갈 곳이 없어 다시

최근 우리가 살았던 사회 조사의 자료를 보면, 소개라고도 한다. 708명 중에서 299명(42.2%)이 결혼 후 남편에게 구타당한 일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지난 1년 동안 남편에게 구타당한 일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14%에 해당하는 99명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 99명 중 1%에 해당하는 7명이 한달에 한번 이상, 한 주일에 한번까지 매를 맞는다고 응답하였다. 만일 결혼한 부인들의 수를 서울 인구의 25% 정도로 잡아 200만으로 계산하고 1%를 계산하면 2만 명이 이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생각되며, 그러면 적어도 55명 정도가 평균 매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 숫자는 대단히 보수적인 계산의 결과이며 실한 경우만 포함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높은 수가 생각된다. 남편들은 스스로 아무데나 때리고 때리고(7.2%), 발길로 차고(10.5%), 몽둥이로 때린다(3.1%), 발가뭇게 때린다(10명, 1.4%), 별, 1.1%), 등의 구타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남편의 구타행위는 다음의 어떤 유형임에 대하여는 69명 (9.7%) 습관적, 233명 (32.5%) (5.8%) 의도적, 12명 (1.7%) 별적 35명 (4.9%) (2.0%) 기타로 나타났다.

1983년 한국사회

<한국여성의 전화> 홈페이지

쉼터 오래들은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피난처였다. 어느 날, 한 여성이 네 명의 딸을 데리고 여성의전화 사무실에 찾아왔다. 전처의 딸이라고 해서 두고 올 수는 없었다고 하는 그녀의 온몸은 벌집처럼 구멍이 나 있었다. 담뱃불로 지진 자국이었다. 그녀는 무조건 있을 곳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갈 곳이 없다고 했다. 여성의전화는 1987년, 그렇게 서교동 사무실 한쪽 방을 생존여성들에게 내어주면서 이들과 30년을 함께 했다.

사회자가 축사를 위해 한 여성을 소개했다.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다 쉼터로 탈출해 온 여성들이 글쓰기를 통해 치유의 과정을 함께 했고 자신의 경험을 글을 묶어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 아내폭력에서 탈출한 여성들의 이야기, 출판사 오월의봄> 수기집을 최근 발간했다. 해나는 여덟 명의 공동 저자 중 한명으로 무대에 올랐다.

버텨줘서 고마워, 지켜줘서 고마워

"30주년을 축하한다는 말로 이 마음을 표현하기는 너무 부족하네요, 30년 그 긴 자락에 저 역시 있었고 그래서 더 생각이 많은 날입니다. 눈물과 땀으로 이 쉼터를 지켜 낸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분들 덕분에 저도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주위에 아무도 없고 보이지 않을 때 쉼터가 곁에 있어주었습니다. 쉼터는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세상에 나가 싸울 힘을 주었습니다. 쉼터를 떠난 지 4년이 되어갑니다. 앞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기댈 수 있는 고향, 천정처럼 있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폭력이 사라지는 세상을 꿈꿉니다." 축사가 끝나고 이어진 박수소리는 마치 그의 손을 잡아주는 것 마냥 따뜻함이 느껴졌다.

1987년 3월14일,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한국 사회 최초의 쉼터가 만들어지고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어 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시작되었다. 30년 동안 9만 1천명 이

상의 생존자들과 함께 해 온 오래들과 여성의전화는 아내폭력이 집안일이 아니라 명백한 사회적 범죄이고 가정폭력은 집안 일이 아니라 인권문제를 공론화하는데 앞장 서왔다. 하지만 완전한 자립이 아니고서는 다시 폭력의 구조로 돌아가야 하는 현실의 한계도 또한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쉼터 퇴소후 가장 필요한 건 자립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기념식에서 앞으로의 30년을 위해 '보호'에서 '자립'으로 라는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쉼터는 피해 여성들에게 치유와 자립을 꿈꾸게 합니다. 하지만 퇴소 후 모든 지원이 끊겨버립니다. 여성들은 남편의 추적을 피해 간신히 구한 임시 직장으로, 장기 쉼터로, 또 다른 이들은 갈 곳이 없어 다시 폭력에 노출될 줄 알면서도 폭력 남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한국은 성별임금격차가 심하고 자립이 힘든 사회입니다. 퇴소 후 피해 여성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주거시설 마련과 자립이었습니다."

무대 스크린 화면에 오롯이 길 하나가 나타났다. 고대표는 '이제 쉼터가 보호가 아닌 인권이 보장된 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새로운 30년을 위한 길 위에 서 있다'고 말했다. 쉼터 오래들은 이웃이 함께 어우러지는 한마당이라는 순 우리말이라고 한다. 평화를 꿈은 한 명 한 명의 여성들이 어우러진 새로운 30년을 희망하는 감동의 시간이었다. W

글 백진영(홍보팀)

그린디자이너 이경래의 삶, 사람, 공간

서교동 한국여성재단 건물에 들어서면 하얀 벽에 여성재단 로고가 보이고 그 벽 너머로 작은 공간이 보인다. 이곳은 여성재단 초대 이사장 故 박영숙선생님의 책과 사진, 연보, 말씀 등을 모아놓은 박영숙홀이다. 2014년 이 공간을 기획하는데 참여한 이경래 디자이너는 올해 100인 기부 릴레이 이름으로도 3년째 참여했다.

박영숙홀과 공간디자인

이경래 디자이너는 최근 자발적 백수가 됐다. 월요일 오전에 만났음에도 얼굴가득 자유로움이 묻어났다. “박영숙선생님을 자주 뵙진 못했지만 오랜 기간 여성환경연대와 함께 한 작업들이 많았어요. 박영숙선생님 1주기 추도식때 여성플라자 1층에 마련했던 전시와 체험프로젝트를 진행한 후, 여성재단의 제안으로 박영숙홀을 디자인한 것은 저에게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박영숙홀은 작은 공간이어서 단점일 수도 있지만 떨어내는 과정에서 가치를 더욱 더 극대화시킬 수 있었어요. 교육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통로이면서 전시의 효과를 주기 위해 조명도 더 신경을 쓰고 박영숙선생님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니다.”



그는 디자인이 사회를 위해 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고 했다. “디자인은 원래 공공성을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이 사적인 이익과 만나면서 소비의 대상으로만 한정되었던 거죠.” 디자인의 공공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해보고자 2년 동안 시립시설에서 청소년들을 만났다. “생태, 환경의 관점을 청소년활동과 접목시켜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절기력을 만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절기력은 14-15일 주기인 반면에 일주일 단위로 생활하는 현대인에게는 사용하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더 연구중입니다.” 최근 문래, 홍대, 상수 등에서 도시 텃밭을 디자인하며 관찰한 텃밭 식물의 한해 살이를 돌아볼 수 있도록 <식물이 자라는 시간> 캘린더를 제작하기도 했다.

내가 생각하는 100인 기부릴레이 철학

올해로 세 번째 도전한 100인 기부릴레이는 그에게 가치와 철학에 대한 도전이었다. “풍 한쪽도 나누는 것. 기부릴레이는 정성이라고 생각해요. 이끔이는 기부를 요청하고 약정을 통해 기부금을 받는 과정을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기부를 요청하는 일은 겐더가 어떤 의미인지, 왜 여성에게 기부해야 하는지, 여성재단 역할이 왜 필요한지 한번이라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부금이 잘 쓰이는지도 살펴봐야겠죠. 저 스스로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상대방에게 기부를 권할 수가 있어요.”

두 달 정도로 종료되는 100인 기부릴레이를 조금 안타까워했다. “나와 함께 100인 기부릴레이에 참여한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일까? 이름, 참여자수 등 데이터로 말고 한 명 한 명의 나눔 이야기를 디자인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 이미지를 염서로 만든다거나 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한 알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람을 치유하기도 하거든요.”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디자인

그는 삶을 디자인하는 일에도 생각이 많다. 자본에서 자유로운 삶,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실제 도시 안에서 최소한의 노동으로 살아가기 위해 실천에 옮겼다. 텃밭의 노동을 통해 먹거리를 마련하고, 필요한 것은 직접 만들어도 보고 나에게 적당한 크기의 주택,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함께 실행해가면서 만난 공동체... 그는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고 말한다.

“인간이 생산의 주체가 되어야 해요. 개개인의 분절화된 삶은 불안감을 조성하여 소비를 조장해왔습니다. 생산에 직접 참여하여 퇴화해버린 인간의 생산력을 회복하고 자기만족감이 높아지면 소비는 줄어들고 건강하게 삶을 꾸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터뷰 말미에 다다르자, 그는 조만간 자신의 이름을 건 그린디자인연구소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근황을 전했다. 그 안에서 기본적인 제품생산, 교육, 워크숍, 공간 디렉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린 디자인의 개념과 철학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경래 디자이너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나자 책 한권을 다 읽은 것처럼 뿌듯하기도 하고 생각도 많아졌다. 너는 어떻게 삶을 디자인하고 있느냐고, 그리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당장 실천해보라는 힘도 함께 받은 것 같다. W

글 박진영(홍보팀)



성별 다양성과 젠더통합리더십이 필요한 이유

지난 6월30일, 인터뷰를 위해 서둘러 어슬럼 정거장을 찾은 김양희 젠더엔리더십 대표(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는 마침 국회에서 열린 여성신문 히포시 HeForShe 캠페인 운동본부가 주최하는 히포시 코리아포럼 발족식에 다녀온 길이었다.



여성과 남성이 협력하는 젠더통합리더십이 필요한 시대

“참석한 의원들과 정치인들이 관심을 보이고 히포시 선언에도 참여했어요. 지금 무엇보다도 남성들의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김 대표가 최근 펴낸 <성공하는 조직의 리더십 모델>에서 한국사회가 다양성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무엇보다 성별 다양성과 젠더통합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다가오는 4차 혁명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에 적응하기 위해 조직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기존의 가부장적 위계중심 조직에서 벗어나 탈위계적이고 초부분적인 협력과 융합을 위해 다양성과 열정과 창의성을 촉진하는 조직이야말로 지금의 시대가 필요로 하고 있다. 이미 선진국은 성별 다양성에 주목하며 이를 실현하여 기업의 재정 성과 면이나 여성의 비율을 높임으로서 성공을 거두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사회는 다양한 영역에 여성의 진입이 여전이 낮은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김 대표는 무엇보다 성별다양성이 다양성을 위해 꼭 필요하고 여성과 남성이 서로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협력하고 보완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창조적인 방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조성하고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나가는 젠더통합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는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여성리더십만큼 동시에 남녀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파트너로서의 협력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남성들에게 다양성과 젠더감수성 필요

사회에 진입하기 시작한 2~30대는 조직을 관료적이고 후진적이라고 생각한다. “강의를 나가서 만난 4~50대 남성들은 ‘여성들은 왜 군대를 가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방어부터 합니다. 이제까지 자신의 주변, 딸이나 아내가 겪는 현실에 대한 공감도 낮고 여성운동을 성평등이 아닌 남녀 대립구도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심리학을 전공할 때 호주제나, 남아선호, 동성애 등의 이슈에 대해 사회조사를 해보면 여성들은 세대나 교육수준 정도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반면 남성들은 높낮음의 분포가 없이 고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사고가 경직되어 있고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남성들이 조직의 주류를 형성하다보니 조직이나 기업도 다양성이 부족하고 권위적인 것이 당연하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관계로부터 오는 친밀함의 경험이 부족한 남성들에게 젠더감수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별 다양성은 다른 어떤 다양성의 요소보다도 근본적이며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이 공적 사적 영역에서 일어난 갈등은 남성적 가치를 중심으로 화일화 되어왔고 여성에 대한 교육의 부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활용 면에서는 매우 저조한 것도 성별다양성의 걸림돌이 되어왔다며 이를 해결해가면서 성별가치가 균형을 이루게 되면 다양성 문제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여성재단이 사무국을 맡고 있는 미래포럼의 30%클럽의 회원이기도 하다. “30%클럽이 지난 2013년부터 기업과 공공부문의 성별 다양성과 모둠마련이나 기업회원들을 중심으로 여성임원 30%캠페인을 진행했어요. 이러한 분위기가 사회적으로도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실제 2014년 하반기부터 여성임원 30% 목표를 공언하는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나 2014년 9월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이 10년 안에 여성임원 30% 달성을 공표하였고 이듬해 3월 미래포럼 법인회원인 (주)풀무원 남승우 총괄사장의 2020년까지 상위직 여성 비율 30% 선언이 이어졌다.

리더십은 조직문화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성별 다양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조직은 조직문화에 변화를 가져온다. “일하는 곳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나요? 조직은 혼자 일하는 곳이 아니라 의견을 나누고 협업하며 신나고 아이디어가 서로를 촉진시키면서 성장하는 곳, Thinking & Learning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리더십은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 공동의 책임이고 일장에서 성장하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리더십이 생깁니다.” 김 대표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성장보다는 명분이나 소소한 일에 더 신경을 써야하는 일터환경에서 리더십의 부재를 많이 느꼈다고 했다. “한국사회도 문제 해결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리더십을 누군가의 책임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라고 안타까워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즐겁고 신명나게 일하며 성장하는 삶을 위해 김 대표는 기업과 공공기관, 최근에는 연지오까지 경계를 두지 않고 성별 다양성과 리더십 강의를 해오고 있다. 젠더통합리더십이 발휘되는 조직문화를 통해 다양성이 통합되는 새로운 사회가 하루 빨리 뿌리 내리길 기대하며. W

유쾌하게 비틀어
성평등을 말하다
시원한 사이다전(展)



문과인에서 호교직원으로,
책미에서 대졸으로

날짜 : 2017년 4월 18일 - 19일
시간 : 오전 9:00시 - 오후 7:00시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3시

출판 : 4월 29일 (토)

著者 仙田 眞 東京大学 文学部

【参考文献】



차별과 편견으로 가득한 일상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한번 비틀어보면 어떨까. 남학생 한 명을 포함 총 일곱 명은 가부장적인 고정관념들과 그것들이 만들어낸 사고나 언어들에 대해 문제 제기를 위해 <사이다제작소>에서 의기투합했다.

성평등에 대한 연대와 관심이 필요

<사이다제작소>는 언어와 미디어를 비트는 여성주의 창작프로젝트라는 주제로 2017년 성평등사회조성 사업에 선정됐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광고 등 미디어에서 보이는 고정화된 성역할과 성상품화를 비판하고 유쾌하게 패러디하여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지난 4월 한 차례 전시회를 열었다. 일명 사이다전(展)이다. 지난 4월 작년 사이다전을 보완하여 사이다전(展) 1.5v을 신도림예술공간(고리)와 대학(중앙대, 성균관대)내에서 진행했다. 일반 대중과의 만남을 본격화한 것이다. 운영자 최현경님은 '페미니스트들에게 더 끈끈한 연대를, 평소 여성주의에 관심없는 이들에게는 진심이 닿기를 바랐다'며 행사 후기를 전해주었다.

"신도림의 특성상 유동인구가 많아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높았어요. 오가며 둘러보는 분들은 포스트잇으로 댓글을 달아주기도 하였고 커플의 경우, 여성들을 호기심이 많은 반면 남성들은 빨리 나가자고 하더라구요. 어느 중년 남성은 진지하게 전시회를 관람하고 저희와 성평등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여자니까 게임 못할 수도 있지

남자애가 왜 이렇게 소심해

'일상에 이렇게 많은 성차별적 언어가 있는 줄 몰랐네요. 잘보고 갑니다. 몸매 부각하는 성 상품화 광고 그만!' 등 포스트잇으로 공감함을 표시해주기도 했다.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포스트잇으로 마음에 드는 작품이나 하고 싶은 말을 서서 붙이도록 했는데 '아름다운 여성의 시기는 짧고, 훌륭한 어머니로서의 시기는 영원하다'라는 공자의 말에 어느 초등학생이

'제가 초등학생인데 남자긴 하지만 공자가 여자애들의 꿈과 희망을 없앨 줄 몰랐네요'라는 댓글을 남겨 모두들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대학내 전시는 호불호가 극명했다. "대학생들은 반응이 빨라요. 확실하게 공감을 표현하며 데스크를 방문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아예 눈길도 주지 않는 학생들도 있어요. 대학이 자유로운 공간이지만 성평등 위원회나 총여학생회 설립 거부 등 성평등 의식 없는 남학생들로 구성된 학생회의 실력행사도 만만치 않아요."

최근 학교내 일부 남학생들의 여성혐오나 학교가 일방적으로 성평등 행사를 막는 등의 상황을 그는 안타까워했다. "17학년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진행하려고 했을 때도 학교 측은 학부모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학교 내 교육을 허가해주지 않았어요. 입시에 시달리며 일방적인 교육을 받으며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대학은 취업 등 경쟁사회 속으로의 편입을 준비하는 곳으로 획일화되었어요."

<사이다제작소>는 상반기 활동을 평가하며 하반기 9월을 목표로 사이다전(展) 2.0v을 본격 전시를 준비 중이다. 전시내용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일반인이 참여하는 공모전도 사전에 기획중이다. 사이다전의 개최의도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친절한 설명글도 준비할 예정이다. 전시공간도 대중을 좀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다.

<사이다제작소>의 사이다전은 갈등을 키우거나 갈등을 조장하기보다는 평소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사회에 스며들어있던 차별과 편견을 한번 비틀어 드러내고 여기에 유머를 더해 즐거움을 주는 성평등 콘텐츠 제작소다. 가을 초입 9월, 시원한 사이다전을 한번 더 기대해보자. W

글 백진영홍보팀

100인 기부 릴레이 2017 이 꿈이와 주자명단

참여인 기간
2017년 4월1일 ~ 5월31일

강경희 서울여대신기초자연과학부 교수 100

강경희 강민지 강성희 강종신 강태운 강희영 김바울 김윤지 김정렬
김정수 김정선 김형우 김형태 문기현 유경미 이근혁 이사람 이승준
이승현 이영수 이재현 이태수 이한솔 이혜수 장미영 장수연 조남준
최금옥 최선아 최현숙 허난영 홍현희

강남석 한국과학기술원 교육진흥원 교수

강남석 박준범 정금나 장혜경

김민겸 이노비 캠퍼스연구소 대표

정금나 정영훈

강봉애 서울대병원 교수

강내은

강선미 이화여자대학교병원 교수 소장

강승백 강은미 권수현 문은영 이명선 이숙진 장금나 한미경 홍나래

강현화 일민연구소 대표

강민영 강상우 강신영 강원화 김바영 권경아 김연경 김용걸 김용학
김종필 김주아 김진수 박다혜 모근혜 문서연 문준섭 문진영 황남진
황선미 황세연 황소명 황조한

강철구 한국이노비연구소장 대표 100

강철구 강은진 계민정 고은정 곽혜경 김보경 김정미 김지혜 김효정
남다운 남아름 남정임 남형기 박민정 변정애 변한주 신소라 안서진
안연애 양수옥 엄현정 유지선 윤선영 윤정호 윤형석 이기연 임지은
장지웅 장영희 주지혜 주혜은 차현경 최선화 최유진

강은경 행복중심성립연구회 회장 100

강은경 강종임 김민희 김영애 김홍순 김정은 김종현 김자숙 김혜경
남지훈 박태정 박혜진 서해숙 석혜숙 송세향 신수정 신한규 안경수
유경희 육현희 윤여운 윤주영 이경선 이복미 이상숙 이순화 이은영
이현희 장영은 장용실 전경순 천영림 정봉희 정진아 차서연 최옥림
최은숙 하이정 허경희 홍옥림

고영희 제주아산병원 간호사 대표

강진영 김수아 김효선 김혜경 문수연 박신옥 성지은 송영신 송영숙
윤영희 이봉은 정혜민 최순영 황지영

고선주 서울여대신기초자연과학부 교수 100

고선주 고종현 고혜준 공형식 구현정 구현주 김소란 김현호 김유나
김주희 김태리 박성은 박홍철 성미애 송예경 신은자 안유준 양근영
양 선 양성숙 윤원식 이미선 이승훈 이재민 이희정 정재환 조은유
조치형 조현종 진미정 최승호 최이진 허신학 허경주 허은성 홍광희
홍선숙 홍용식 홍재명 홍재식 홍정재 홍준희 홍지민 홍지민 홍현희
황은호 황준성

고재순 노무현재단 사무처장

강희영 고재순 김선희 김은경 김지범 김현경 선미라 성수현 오상호
이숙진 전기태 정은영

구로살터지역자활센터 100

구로살터지역자활센터 김명경 김용식 김장숙 김재현 김정렬 김현순
노현수 명관임 박수현 박원석 박홍순 손영옥 양신애 유경자 유명화
윤수현 윤혜연 이광애 이광복 이금진 이복남 이부민 이정미 이진상
이향남 장찬호 주진민 최귀임 최영숙 한일환 한현주 허순자 하지영
홍미애

구려아살터 조은영 대표

김슬지

국군간호사관학교 동원숙 학교장 100

강명숙 강민지 강수영 강정숙 고경양 고은지 고은자 곽은혜 곽혜민
권다혜 권영훈 김경동 김도연 김미정 김미현 김민숙 김민주 김성주
김수연 김유경 김유리 김윤미 김은경 김은순 김정은 김종은 김지현
김지희 김진미 김현정 김현정 김현지 김혜원 김효진 나정순 류은진
모예은 문혜지 박소영 박진이 변혜경 서광숙 서영서 서지인 손혜연
송소연 송연화 송 진 안지은 안효정 양주연 오유라 오혜민 유재은
윤원숙 이다혜 이미영 이만주 이선영 이상원 이세연 이수진 이은영
이은화 이정민 이지미 이지원 이지훈 이진이 임혜진 전은경 장나라
장소은 장영선 장지은 장태연 조민정 조순영 조주은 최선영 최은정
최은영 최지선 최지현 한 정 한혜리 허난설 홍은지 황나라 황지성

김귀순 새마을법인 부인 새마을

곽창미 김귀순 김미희 김영선 김장애 김화숙 민정하 박리혜 박신희
송영주 양진숙 이수경 이영미 한인숙

김내은 한국여성재단 나눔기획팀 과장 100

김내은 김경숙 김나리 김내은 김미영 김미정 김명숙 김영연 김윤희
김주영 김혜진 남예연 민영숙 박성미 박정민 소현희 송수진 안식문
육자숙 우수현 이미경 이상진 이서운 이서형 이선영 이수정 이한영
이유진 장윤성 전영옥 정경란 정세은 정소영 정승원 정하준 주희연
최송주 최은영 한정자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100

강혜란 고경리 고미숙 권현정 권원희 김미경 김민문정 김유림 김향혜
김호신 문옥신 박민희 박영옥 박인동 박정민 박조원 송진옥 오경훈
오수학 오지은 윤난희 이명희 이은소 이향숙 이호규 임종렬 정경화
정선영 조미정 최진희 한성경

김수정 국제사회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00

김민주 김성민 김수정 김옥현 김은수 김홍희 김진미 김창애 김태훈
문영희 박미현 신지연 심정원 안종호 오윤주 윤성식 이소은 이수현
이승태 이재연 이정은 이태권 임서영 장영선 채복선 최은정 최재욱
최종진 한상철 홍영희

강양희 연세대학교 법대 100

강은희 강희영 강경희 강양희 강영호 김준경 김형미 마경희 박기남
박영란 송치선 우수정 윤미혜 이동선 이숙진 이우섭 이종구 임은미
장동진 장미혜 장석우 장준우 전기택 조선주 조준경 조혜란 최윤정
한 술 한승호 홍근표 함정애

김연순 경북중성대학교 법대(미사) 100

강희영 권경규 김연순 김용현 김은주 남종진 두호근 문경수 문승현
박현정 송 건 안경수 양지석 오경희 유기훈 이경민 이미선 이은경
이만숙 장영복 지혜연 최소영 최정희 한재연

김영순 한국교통대학교 공대 100

강혜숙 강희영 권순기 김경삼 김미란 김수희 강영혜 강영순 강영욱
김여민 김정희 김현조 남숙경 남은주 박은정 박차옥경 송경민 신미영
신박진영 안이정선 오경진 유일영 윤경희 윤영희 장수진 장지은 지영희
차유미 최윤희권 최이식 한용봉

김은실 고려대학교 법대 100

강민아 강나연 김은숙 김선효정 김주희 김희진 노자은 류은재 이영선
이수정 이해용 장필화 최수영 홍혜미

김은주 연세대학교 법대 100

강경애 김국희 강영혜 김미희 김민지 김성남 김수영 김순량 김윤동
김주희 김 진 신윤정 이동기 이만정 이소희 이은호 이임순 임희윤
장문희 장성돈 장형준 전종열 정금나 정유미 장인희 조남복 최은정
최지영 최진홍 허 준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리대 법학부 100

강나연 강태이 강희영 권민지 권수현 김승래 김연수 김연주 김영룡
김옥희 김지수 김지원 김지혜 김소룡 김현미 김희희 김희진 나경민
박고연 박국희 박보라 박수영 박연지 류유선 서혜민 오승희 유영우
유정우 이경은 이명아 이수정 이은정 이인화 임상희 임혜영 장민주
장승화 조영수 차상우 최시현 최혜영 최혜정 한승희 한은혜

김혜경 연세대학교 법대 100

공석은 공수연 권정순 김민정 김승룡 김애영 김우남 김현옥 김현주
김혜란 남궁영희 마경희 미우성 박기남 엄영숙 유옥자 이기범 아산이
이성호 이숙연 이은미 이영숙 이정필 이정림 이현재 이형엽 정미경
지경희 최우영 최정희

김효선 아산신분 대학교 100

강희영 김민지 김보배 김상화 김용남 김은수 김학수 김효선 박규영
박길자 박병욱 박정자 박한오 방경림 박 진 서은경 손혜민 손혜승
신준철 양성희 유슬기 윤정근 이장수 이장실 이하나 임민욱 조혜영
차운경 차민석 차민수 한선정 한현정

남미정 아산신분대학교 미사 100

강희영 고대연 남부원 남성원 남민미 남원정 남주은 남혜진 박금희
박필순 윤현정 이경아 이미란 이종훈 이후석 장세빈 장옥순 장지연
장윤주 진윤미 한인규

대구북구여성회 정재은 회장 100

김경화 김경희 박경희 박세현 박승우 석영주 손수정 안미영 오현주
이정선 임명숙 장지은 장한숙 차유미 최문지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부회장 회장 100

김문자 곽지혜 권영주 김숙경 김양미 김윤주 김은주 김정산 김정애
김혜선 김혜영 부하람 서정근 신윤숙 안설아 윤혜은 아서영 이윤미
이정민 이정숙 이종숙 임현희 임혜민 임효숙 장귀숙 장현정 전승미
주성진 최남미 최선미 최은영 최은정 최은희 최한나 추정희 한미영
한미정 한영림

류혜란 연세대학교 법대 100

김성자 김장하 김현수 류혜란 명종애 박경현 박성희 박선영 박현정
배민혜 변덕순 여경희 윤강희 윤상민 이은아 이재희 이해영 임미경
조문희 조영숙 조은미 조진희 전영선 최이환

마산YWCA 이대진 회장 100

갈성경 김미순 강현영 김경미 강영순 김정아 박주옥 박한주 윤슬지
이애라

문미란 법무법인 남인 회계연호사 100

문미란 이한혜

박경수 연세대학교 법대 100

김수남 김윤석 김지영 김효석 박경수 박은주 박재홍 박정민 성우석
손애경 윤정아 장민희 장우근 한영섭 한종우 한종혁

박승진 농협 서고동지점장 100

강동석 강승연 권역자 권혜현 김문석 김새미 김연숙 김윤진 김은주
김홍식 박승진 박찬민 박하연 서수경 심현정 양옥순 윤성희 윤종철
윤주희 이기연 이영미 최수진 한요순 홍순옥

박옥희 박영숙상제리 이사장 100

강희영 구윤정 김라희 김마저 김어리 김재하 김장연 김태수 김희오
박성윤 박숙향 박옥희 박우영 소문선 신상철 유해분 윤신애 이경하
이경향 이성호 이은지 이재영 이진하 정금자 조미숙 조영일 전승현
천호균 최숙경 최수진 최숙희

박은희 삼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00

고미향 금석진 김광숙 김소연 김아린 박지영 성종기 신에서 안다은
안다희 안희철 유정수 이승환 이은기 이해경 정철화 최은정 하재윤
하정윤

박해경 **김연도** **김기숙** **김연주** **박해경** **이보라** **이선옥** **이슬기**

가수연 김민정 김지영 김희진 박연주 박해경 이보라 이선옥 이슬기
이한옥 정근나 조누리 홍인숙

박미순 **한구이** **조재민** **상임대표** **100**

구자관 구한결 김미순 김미혜 김수아 김태욱 김효진 남성아 박성진
박준섭 박지현 백복주 백미순 백선자 백선희 백운정 우광재 우기식
이나원 이석호 이승진 이재원 이정기 정근나 정미애 차옥경 최윤선
최정희 천선희 황지영

반해정 **홍성복** **이성형** **변근**

권수빈 김광영 김남희 김다슬 김성환 김소영 김유리 박상일 박정현
서용준 성숙진 신지수 오경숙 유수진 이은화 정일상 조우연 이재민
하기룡 홍지민

부산한부모가족센터

국부윤 김규진 김미숙 김은희 김옥련 김지은 김태호 윤미숙 윤정희
이상희 이명희 이원자 이길조 안연한부모가족지원센터 정영애 장 훈
정미자 정영희 정영숙 진금희 최미정 최위숙 한미애 황규태

서면 **한구이** **조재민** **상임대표** **100**

김병철 김광원 김명주 김선자 김영자 김유미 김재일 김재호 김형석
김형민 류선은 민광준 박노준 박석원 박철수 서 민 손순덕 안보영
안재원 윤정희 윤종필 윤항진 이영일 이예희 이유경 이준호 장미래
전은주 최경아 최창진

석연선 **이영희** **한구이** **조재민** **상임대표** **100**

김상걸 김재현 김재은 김태희 김희중 박규비 박지민 배건미 신영기
신혜윤 양상희 오동익 오동희 오수진 유대곤 유송하 유지현 육근미
이은주 이현재 정민선 정민욱 정현준 정민한 정윤한 정철웅 최재선
최종욱 최진경 홍석자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실천여성학과

김성희 김영선 김유미 김은경 박미애 정연보 조효재

손문금 **한구이** **조재민** **상임대표** **100**

강희영 김윤성 김재원 김재인 노혜원 노호래 두정희 박기남 손문금
손영준 손형란 손형숙 이숙진 최원규 최철호

송다영 **한구이** **조재민** **상임대표** **100**

김민정 박기남 송다영 최영숙 최진우 최진희

신경아 **한구이** **조재민** **상임대표** **100**

김경희 김민정 김서현 김성원 김혜경 박기남 신혜경 여정혜 이재우
조희준

신미숙 **한구이** **조재민** **상임대표** **100**

김동영 김세정 김선화 김미연 김현섭 김홍성 류양래 류지민 류희재

신미선 신미숙 신순남 신원희 신정남 신정숙 신희범 오금량 유소영
윤정희 이연규 이명희 정유리 정향기 정동명 정민우 정민혁 정진성
최동진 최보현 최선경 최성우 최인서

신창재 **고보영** **최창** **100**

강석정 국다현 김기환 김도수 김성환 김 옥 김윤석 류상걸 민 옥
박봉권 박서용 박영규 박영우 박진호 배우순 서대식 신상민 신창재
안조영 유영식 윤민학 윤일현 이석기 정대창 조대규 조희종 차경식
최학수 최화정 권장범 허정도 황미영 황주현

안영옥 **국립중앙박물관** **100**

김미영 강승문 강예리 강은자 정창우 김귀자 김미연 김선자 김성운
김수진 김순희 김연순 김유나 김유리 김지숙 김진환 남혜리 남혜진
문미래 박선용 박세진 박혜나 박용진 박운주 박정아 박해림 서용영
성금란 송지수 신미라 신수영 심현숙 안영석 안영수 안영숙 안세윤
안세진 안소근 안승연 안향원 안정옥 안지환 안지은 오지연 유 임
유정숙 윤세미 윤안나 윤정림 이금희 이승재 이희희 이은영 이정재
이진실 이창우 이화숙 임소연 임은정 임희재 장성목 장혜진 장현옥
조국화 조안나 조유희 차현숙 최상아 최은영 최은숙 최창숙 최지혜
최진아 하나영 이정희 홍옥기 황유진 황정혜

안윤정 **한구이** **조재민** **상임대표** **100**

안윤정

안인숙 **한구이** **조재민** **상임대표** **100**

강운정 김은희 김진희 김희진 두레생협연합회(김해점) 박경희 박옥기
박정아 안인숙 오미애 이경선 이정아 이진 정미옥 장선이 최정숙
허선주

안종길 **한구이** **조재민** **상임대표** **100**

권용아 권용지 김소희 김솔지 김영은 김유리 김윤진 노금옥 문영희
박인순 박지혜 박금희 석희관 신광숙 신정옥 안영정 안종길 윤경은
윤경민 윤연희 이금순 이마나 이수민 이신혜 이현순 정유진 정은아
정주리 조미정 주현진 지영은

안나네트워크 **100**

강기람 고은희 김라혜 김민영 김지혜 마 리 박수민 박한희 방미슬
배상진 배성진 서지은 손연오 송은비 송정윤 안소진 양진선 우지영
이도균 이유나 이진영 이태희 장지영 장지현 정수미 정의정 정한희
조선희 진소원 한송이

왕인순 **서울여성노동자회** **100**

왕인순 변재봉 전필교 정문경 최선규 최보현 정근나 조유희 한송철
김연나 한수영 한수연 최경호 강 화 최보리 최보현 이종도 지윤주
이윤선 박선우 오순옥 박성준 양희연 임정옥 임현옥 주혜영 김윤선
박민나 박진영 특수교육책임관

*이공이 요청에 따라 주자명단 정리되었음

박진영 박찬영 박재현 박태범 박철우 박태영 박희숙 방성현 방영미
배강훈 배성준 배정용 백기덕 백기현 변아영 변정욱 복진수 서경석
서동인 서민정 서민권 서성욱 서우현 서지은 성경주 손서연 손승우
손영삼 송가옥 송문배 송상섭 송석남 송인희 송은주 송정민 신동철
신정호 신지원 안병택 안성민 안안영 안지연 안태건 안호성 양호영
염은석 오기영 오영혜 오병목 오정미 오정환 오재환 오한나 우창재
유경도 유규영 유란 유민경 유용재 윤승현 윤영도 윤영표 윤정민
윤진호 윤재일 윤양연 어강수 이경진 이경화 이광민 이광태
이기갑 이다혜 이덕환 이동욱 이미선 이봉수 이상길 이상운 이상우
이상일 이수연 이수현 이슬 이상훈 이송호 이예림 이원영(이수연)
이원경 이은희 이윤수 이희상 미미섭 이재영 이재용 이자우 이재원
이재철 이재학 이정현 이재훈 이종은 이종은 이주형 이준혁 이지민
이지연 이지원 이창근 이창철 이태희 미현주 이형일 이형훈 이혜리
이호경 이호선 이희원 임명순 임지연 임재원 임태환 장석만 장소현
장영석 전 덕 전영숙 전윤훈 전은규 전정환 정경희 정미경 정봉수
정성태 정은용 정재욱 정재환 정재호 정주완 정진향 정하선 정홍철
재명신 조규식 조민재 조상진 조수용 조승현 조연재 조영민 조영희
조용철 조임준 조장식 조형석 주범모 전재승 차미연 채수익 최광식
최규복 최동민 최보라 최성택 최세훈 최소영 최수빈 최영석 최영송
최영식 최영애 최우희 최우민 최은경 최은정 최정우 최지은 최찬순
최철만 최호연 피재영 허유정 한아름 한윤수 한정호 한재수 한종익
한창호 한희정 현은미 현하정 황어연

유한협발의 송주 공창창 조경희 심우 100

간호찬 강덕순 강범희 강창익 강병철 권고섭 권도윤 권병기 권상두
구본환 구열서 구영서 구자용 구재은 권두현 권오신 김경임 김계숙
김광근 김기성 김기훈 김남규 김남중 김두현 김류하 김명희 김보년
김부길 김선갑 김성호 김세준 김승규 김승원 김명일 김영창 김경준
김용강 김유나 김문수 김문수 김문정 김문진 김재영 김창태 김재현
김종성 김종일 김준배 김준혁 김진규 김진표 김진환 김준태 김준환
김태유 김태훈 김한하 김해영 김홍식 남광현 노준영 노혜진 리운석
문정근 문철용 민경일 박강희 박경현 박경환 박광식 박광준 박근영
박기정 박두환 박영수 박성훈 박성현 박승택 박우선 박민원 박재석
박종민 박종달 박진민 박진환 박창열 박창용 박창현 박철수 박준동
박태규 박형문 박해민 박희진 배석수 배성민 배성주 배한근 배인선
봉문규 서경태 서동욱 서승봉 서승복 석성용 선은주 손영복 손종민
송덕일 송민식 송문선 송종훈 신갑술 신대환 신만식 신영준 신현동
신현철 신흥석 안광용 안국호 안병오 안선희 안순기 안철수 안현희
양명환 양현식 양선애 양재명 양건섭 오규만 오봉석 오상호 오선섭
오성택 오은숙 오재성 오주호 오준영 오준호 원선미 유근철 유우선
유미라 유선희 유영미 유영상 유옥목 유재진 윤라현 윤영희 윤승한
윤태조 윤종성 이간주 이경섭 이경수 이국희 이기룡 이달석 이동준
이병관 이병도 이상규 이상근 이상민 이선호 이상미 이상훈 이윤범
이원용 이원태 이재선 이재준 이재현 이정주 이준모 이지윤 이창기
이춘학 이태호 이현숙 이희상 임승영 임영민 임태형 임학봉 장경수
장기덕 장길용 장영수 장연규 장주연 전민주 전영복 전영환 장성진
장영환 장용식 장용성 장민수 장정수 정화민 정하빈 조경미 조경희
조동환 조영수 조영근 조인자 조진성 조하근 조한진 조희호 채대석

최경애 최근철 최금실 최병기 최성식 최영남 최용구 최우만 최재방
최재환 최정수 최종민 최준수 파선희 하선용 하성환 한기조 한범석
한영근 한영희 한갑수 한정욱 함석원 함석환 허영하 허해영 홍석진
홍성권 홍성우 홍승국 홍자성 황대선 황영표 황인덕

은채원 기부자 100

김상수 고득영 고지원 김미란 김성환 김소영 김윤희 남현지 박성훈
신지영 신진선 윤선희 은채원 이상필 이상광 이숙진 이혜경 임연옥
정현철 조아진 한영자

이가은 17개고등학교 2학년 100

김지영 김경자 김경자 김동신 김보림 김성희 김지연 김형자 김한숙
문지선 민가숙 박금희 백금숙 백진자 서경자 신재환 안진자 엄경희
유창영 유혜성 이강숙 이상희 이상규 임문자 임춘자 장문자 장홍자
정경자 정영자 정문자 조 석 조수현 주가철 진부자 홍선희

이건정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100

강라영 권두숙 권 항 김경선 김남희 김명숙 김미순 김민정 김사내
김은미 김정희 김혜미 문수정 박가남 박미홍 박민아 박선미 박숙경
배소영 선주원 선주하 선현영 송혜영 신재영 심은주 영혜윤 유은경
육자수 윤 미 윤영환 이하림 이 제 정희영 조철영 최현정 홍연희
홍정민

이광재 고려대학교 100

김건아 김동배 김미르 김정민 김정욱 김홍서 문지은 문지혜 문현정
박성현 신현영 양소민 오병훈 옥진주 유미영 유영하 윤지영 이경래
이내영 이선혜 이수연 이영석 이윤이 이지영 정미정 정다운 정미정
정혜숙 최준영 탁율민 홍미정

이경순 한국여성재단 이사 100

강은성 김기남 김기선 김세운 김용원 김용자 김해자 문경자 민용자
박필준 박유자 신미강 연미자 양주혜 연정자 영정임 유종근 윤옥민
이경순 이미대 이상옥 이윤경 이정자 이화지 장혜자 전정상 조성복
조용숙 조창연 최 영 최인자 탁인자 한설희 홍선경

이근여 구로여성회 대표

김내은 김은규 김지현 송은주 연정희 유선희 이근미 조순아

여갑여 기산대학교 총장 100

권진수 김명수 김신복 김양우 김우경 김은하 김재일 김홍식 김화영
노연홍 박효선 송병원 송석구 윤성태 이경천 이 근 이근희 이갑여
이성우 이상표 이선훈 이정남 이주경 이태훈 정명희 조용균 조영규
조효숙 최도성 최미리 최혜영 한문덕 홍준희

여영혜 한국YWCA연합회 회장 100

구정혜 김병환 김상은 김신영 김은영 김태연 명진숙 박미선 박은실
박효정 배정미 박혜진 손서정 송복희 안정희 원영희 유선희 이기원

이영혜 이민정 이윤숙 이윤영 이종임 이주영 이해현 이희정 임진영
장서연 차경애 천유란 최지영 최형선 한송이 한영수 함희경 홍현정

이상덕 양귀대학교 교수 100

강보환 강신민 강현희 고해원 구숙경 권일현 김민선 김창규 박건호
박미혜 박영미 배옥숙 박지원 박지현 엄준철 이상주현 이상덕 이상영
이새롬 이정미 이정원 이해원 장희순 조산형 조성혁 조은아 하정미
하정은 홍현희 황인모 황재용

이상업 한국여성재단 기획홍보위원

김희영

이상문문화재단 임직원 대표 100

곽태호 권광자 김미경 김민서 김민선 김버들 김여일 김 연 김윤경
김하영 김혜영 김혜원 노용주 노화정 무 명 민수현 박찬욱 반자유
변수진 서울강대기 신승희 심영숙 문수진 문정민 이경희 이명희 이보람
이지영 이해은 이희용 임경훈 장형정 정광숙 한지혜 황성희

이수연 국가안전위원회 여성인사담당 100

강영숙 고진희 김도연 김명미 김미숙 김선미 김영진 김원규 김완영
김유빈 김정연 김지영 박주미 서영호 서현수 신윤덕 양세민 양태덕
이명화 이서진 이수연 이영서 이영순 이정순 이하정 이해경 이해실
이혜진 이현주 정금나 조장하

이숙진 한국여성재단 임원이사 100

김경애 김유철 김윤지 문기현 박기남 박분순 박선희 안연숙 이광숙
이금일 이숙진 이창환 장수옥 정강자 조호석 최성애 최은순

이슬아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김보화 박병영 박진영 유민숙 윤경자 이상구 이윤정 이 인 이주하
이현석

이영걸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100

곽은정 김경복 김교란 김기두 김민선 김명대 김유리 김정은 김종혁
김현진 문기현 문길성 안태식 박경민 박금희 박지연 박지영 배연숙
서자영 심호영 엄지혜 오경아 오연석 이강덕 이들수 이인경 이병훈
이성규 이신숙 이재환 이장관 장철원 장효근 정성희 정익선 최문택
최형준

이윤재목 고양보호사 100

고명모 김남주 김동식 김민정 김홍순 박기남 박은옥 박현영 서대남
안상용 안재환 안예슬 안예은 우경원 우선영 우재용 윤영자 이수현
이은래 이윤재목 이재은 이재희 이은실 이해인 장영진 장은나 장지나
장병임 최정원 최진숙

이윤정 김민여자대학교 교수 100

관영미 김미정 김선희 김숙영 김희진 노유리 박동식 박미주 박선희
박진영 엄미정 윤경자 이민철 이복임 이상구 이 신 이윤정 이 인

이현석 이해란 이해연 임성희 장옥주 천은미 장고은 정수정 조경미
주혜주 허미경 허정이 황선진

이은애 서울사회복지경제지원센터 센터장

박금희

이정구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현경 이정구

이재훈 이태운요가KARAOKE 대표 100

SEOI WON KIM 고혜경 김경미 김민주 김선진 김세원 김연주 김완숙
김혜진 노민희 문새미 박수현 박은정 박준홍 박지민 박진영 신보람
오혜윤 우남선 유은영 유지영 윤은영 이단희 이정현 이재윤 이지현
전규나 진은배 최현호 한국차기이합협회

이해경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100

Margaret Carter 강경애 김혜규 박지영 김민경 김수연 김원재 김민지
김윤지 김은미 김진희 김하진 노혜련 박기남 반영우 석재은 상영희
안경모 안혜영 이경희 이 영 이은정 이자숙 이현엽 이해경 임수호
장소현 장운선 정금나 정복주 정효지 조장하 주은수 최순옥 최영선
최영은 최은영 최지선 주매주 허수연

김하은여성아카데미 100

김예민 김유정 김장림 김정희 김자은 김지혜 김태영 박지연 박홍신
배진경 손영주 신상아 심명희 연수연 유장임 이명선 이상성 이원아
이주승 이주호 이주환 이준하 이태민 이향란 이해현 임나리 임윤옥
장미정 정 선 정선영 정아수 조자영 최치숙

장미정수 여성활력강화 대표 100

강희영 경진주 고금숙 공병향 김나리 김영숙 김명희 김민지 김세은
명희진 박종태 박선숙 송문식 신은희 양승진 양종화 양혜슬 이미란
이보은 이단소영 이정수 이경아 이현주 장희정 조은서 조은아 채은순
최순옥 태희원 함정희

전국여성노동조합 100

구민정 권강재 김경미 김명덕 김미라 김미혜 김보영 김순옥 김연주
김윤숙 김정희 김주옥 김진순 나은미 나지현 남영옥 남홍미 노문순
라순정 류현경 문현주 민경선 박미혜 박미정 박미정 박선미 박선미
박성희 박소영 박수정 박유미 박은아 박정자 박지현 박진우 박효선
박희정 백미선 서잔영 서하을 송정자 신은희 신순현 신연주 신윤영
신은주 신재애 신정현 신종숙 심명희 안영희 안현정 오세국 오연희
오은서 오희서 오혜숙 유은숙 유관들 윤은희 윤은주 윤혜경 이경선
이미정 이복숙 이서현 이선경 이은숙 이정미 이정자 이진숙 이진옥
임영희 임자섭 장우성 장인정 장준영 장형자 전은영 정민경 정민수
장숙한 장언지 장영민 장아수 정진희 정효란 정 희 조순미 주은영
주점숙 채기림 최미혜 최병희 최은희 최은순 최정은 하은주 홍미정
황미옥 황정화 황자성 황지현 황진영 황희숙

청금나 천안국제재단 나눔기금일일 100

김순자 김한숙 박유라 방인숙 서동찬 서연경 서일원 서종원 석필선
신은혜 우희자 이정혜 이주영 정금나 정은택 정만석 정유나 정유숙
정유진 최강숙 최상근 최미경 최선경 최순옥 최순영 최재만 최종원
최종문 최진경 한재우 황숙희

장영애 서울서여자대학교 교수 100

강인형 강인혜 강희경 원금주 김은나 김은경 김정희 박선민 박태정
서지원 서지은 서지현 서진달 선미리 이두영 이영선 이문숙 이선율
이숙진 임세희 장화경 정민재 정순영 정영애 장영호 정은진 정화재
지소영 최명희 최주희 최현종

정용철 KBO 야구 선수

김술지 김희진 정용철

정유정 한국현대산 프로모션 팀장

김내은 정수진 정우진 정유정 조희경

정재홍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승혜 김애선 서울아 안정선 미수진 전은주 정은수 최혜진 한지성
황경만

조주원 계명대학교 교수 100

김명숙 김혜영 김한진 김문정 김병한 김성하 김영애 김은희 김정민
김정환 김지환 김태연 남기경 박윤숙 박지은 배영미 백유경 서가연
손선희 송광진 신미란 신은희 양숙희 이명옥 이숙현 정경숙 정태수
조주현 지명향 최관주 최민혜

조현옥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과학대학 교수

김희영 공태숙 김순옥 김은경 남혜원 선미리 신성환 신혜경 연누리
연두리 연보라 연이라 이기연 이수희 이숙진 조현옥

조현진 한국여성재단 이력정보 이사장 100

고대연 고선일 고은영 구현주 권현지 김가영 김경희 김보연 김은미
김은하 김지아 김철선 김혜정 김희진 노선숙 마경희 박금희 박가남
박은수 박현정 송은영 송은경 신혜선 오유석 유여원 윤정희 이경미
이근형 이상수 이소희 이은희 이주희 이혜리 이혜숙 임수연 정경우
조미연 조 현 주선희 채창희 최선이 최인이 최정은 홍혜란

조흥식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100

김상표 김성현 김용석 김유경 남석인 박순준 안상희 임태산 임희강
오보일 오승환 오정순 유영화 유원준 이다윗 이광미 이영분 이용표
이한주 임우경 임재홍 임지성 장기명 장연진 전영섭 조상훈 조예슬
조흥식 최상재 황숙연

홍은세상월간드림자랑을 김도은 대표

김도영 김도은 김문주 김수정 김조은 김종옥 김학규 류후남 박지선

박현서 서정희 서효성 송한희 안효선 양영심 윤건희 윤용내 이경희
이미숙 하지는 홍경희

중부여성발전센터 박주영 소장 100

강시현 강영미 김지혜 김한미 김현지 문순희 문희숙 박경화 박보현
박영재 박인범 박임성아 박정화 박주경 백인화 서미경 서우경 송수한
송숙영 신미경 연준혜 윤상우 이숙현 이화용 임은정 장정연 장영순
조민영 조종현 조주영 천영자

진양혜순범수 코디네이터 100

구자숙 구지현 김진호 김지홍 김태선 김효정 남경은 리영은이조희서원원
박금희 박지영 설혜옥 손병수 심인숙 유다솔 이승은 이인형 이재석
이준호 이해은 장수홍 정금나 조수미 진양혜 최민규 최유림 최윤선
한수인 한재민 한 준 허문정

최복성상

김민지 박아루 이미숙 이차미 장완수 허병만

최유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00

강민서 객은영 김경진 김봉희 김유진 김은주 김은희 김정환 김정원
김주은 김현정 문화경 박수정 송유나 송지현 이동선 이명희 이상연
이소영 이영숙 이연영 이은주 이재연 조은희 신창민 최병호 최수현
최유진 최유정 최은화 황동미

최하늘 신대일고등학교 3학년 100

고재현 곽정기 곽지혜 김동휘 김수현 김임은 김태경 봉배 박금희
박순희 박영리 박학수 박해림 서희숙 손상진 심선경 신윤란 이용태
이주호 이한영 장두순 장숙영 장은영 정담빈 정승환 정복인 최 인
최하늘 최현미 최현수 한신복 황정원

최현수 인간사회학회경제지론학회 대표

김길순 김대일 김세영 박금희 오성은 윤석훈 이용진 이창수 조학진
최현수 하용녀

권박영 창유경 대표이사

김선탐 김주연 두석현 박규태 박원국 송두호 안소연 이주환 장경애
장유경 전병엽 한진희 황희선

평화물만드는여성회 인김장애 대표

김정수 박인혜 신민서 인김장애 안자영 아혜숙 이덕경 장근석 장인수
장은수 조영희

한국미호모가족협회 김도경 대표

김도경 김동현 김미진 김민정 김지연 김태호 김혜리 김효미 목경하
손승영 윤라영 윤미선 윤보라 이미화 이슬비 이정미 임효은 정수진
정아정 최혜진 최준기 최현숙 홍기은 홍 한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박상희 선 영 양은호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100

김보화 김수진 김신아 김연정 김윤혜 김정미 김지영 김혜정 노선아
박대성 박대진 박상훈 박아름 박지희 손미정 송미현 안선민 이동원
이미경 이해경 전해영 정은경 조경호 조은희 조안석 최규명 최상지
최성훈 최영지 하민숙

한국여성영화제 그림자 대표

고미경 송한희 한국여성영화제

한국여성재단

강민경 김슬지 김유리 박도연 박소현 유은정 이혜영 이혜수 이혜인
장기훈 한영미 현소희 대한여성문화발전소아이공 두란두란 문화기획단
텔레토크기부금 포스트로지

한국여성사업회 100

장기순 김민아 김민희 김승현 강효정 구혜진 권리안 김명경 김미정
김미정 김민선 김수연 김은선 김정희 김현진 김희영 남수경 문근목
박세은 박유미 박윤주 배수옥 배현나 변옥지 송성숙 신지연 심아람
유영주 유화영 이단오 이수복 이순이 이유리 이주은 이지원 임귀자
임도아 정창미 정미희 정은숙 장인하 조복남 조연우 조은정 조진영
주영미 진광은 최경은 최부진 최선희 최은숙 황경애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영속 상담대표

곽동빈 김수진 부지현 송옥진 이채희 이혜리 한기은 허영숙 홍애화

한문협 이주여성기부금 후원회사 100

김용남 김이려 문난하 양민승 이한용 임해자 정금나 정형수 조완기
한문협 함주희

한국지정기부금지원기구 후원 100

김대성 김선희 김명혜 김은자 박미아 박영지 박은순 백선정 신용연
김형선 김혜경 김현희 전지연 전지은 전하기 정형욱 최상욱 최윤선
한구원 한기원 한옥자 한옥환 한용욱 한용재 한용환 한유진 황기성
황민성 황민성 황지음 황진성 황현영 황홍성

한성투 한국여성기부금 후원 100

김기석 김명지영 김종철 송미영 우복남 이경하 이정일 이혜민 임우연
조윤진 차희원

홍익회 이주여성기부금 후원 여성기업 100

김희경 구현주 박정현 임주연 윤연숙 임진희 장상민 정오순 탁성희
한미경 홍경희 홍기산 홍미희 홍승희 홍숙희

홍익회 임직원 대표 100

김내은

홍익회 이주여성기부금 후원 100

구버선 김도리 김민경 김민진 김선희 김유화 김지수 김지은 김혜진
내영미 민성욱 박소현 박진영 박희숙 서민지 서지우 신생이 엄기태
이무종 이보훈 이승철 이연호 이예린 이자연 이현주 이희용 임원신
전우용 조아라 최민아 최말선 최효정 하민경 홍경희 홍세호 홍승범
홍승희 홍용희 황재현

황정미 임직원 대표 100

김희경 김경희 김근숙 김민정 김수정 김 영 김재현 김홍욱 김준정
문경희 박기남 박재복 정민경 홍정희 황정미

희망동상 유정혜 이주여성기부 100

강영옥 강희연 고사영 권말바나 김미선 김보영 김선미 김승리 김순자
김순희 김슬지 김승민 김승재 김성기 김용기 김인태 캐롤리 나영숙
나조금 나현영 노미자 다린두 당다뜻 단 달산 마노 라네 레실 레티투위
레티후에 루안 류지혜 루티카워 미도현 미오켓 박말숙 박옥이 박주현
박하연 배혜은 버주루 보티카누왕 부윤아 부아티족인 샴비르 서성주
서일광 손정철 송혜림 수렌드라 신금자 순쉬에후아 안아르 알람기르
알미안 앵돌 에란그 에릭 왕언 원개에우광 원자혜 원티팅 위달 유경혜
윤우연티팅종 율렌타이엔옥 율렌타이엔느 이갈숙 이동필 이말숙 이보은
이소미 이수임 이윤영 이혜은 전서미 장수진 정미아 제성모 존리
평원진 켄단록 켄티투엠티인 켄티투루이 채정민 최광경 최수경 최희주
추영티아라 홀비스나 카말 케오사은 쾡달 크리스산 팀달 팔릭을 뎃티터
뎃티한 쾡반꾸엔 하비부 하장국 허유나 허말레 황반날 황정임 후인티달

“

100인 기부할때마다 3117억
원어려우신 여갑이와 기부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혹시라도 누락되신 기부자님은 나눔기획팀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기부자명단 관련 문의
나눔기획팀 02-336-6463



<베트남 다문화가정 외가방문 지원사업> 참여가족 선발

한국사회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외가방문 및 어머니나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베트남 다문화가정 외가방문 지원사업(후원: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참여가족이 선정되었다.

4월 전국 공모를 통해 총 132가정이 신청하였으며, 그 중 43가정(154명)이 최종 선정되었다. 최종 선정된 가족들은 1박2일간의 사전프로그램(7월29일(토)~30일(일))과 7박9일간의 베트남 하노이&호치민 현지프로그램(8월19일(토)~27일(일))에 참여할 예정이다.



<짧은 여행, 긴 호흡> 기획분야, 인도네시아 자바섬 비전여행

2017년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지원사업(후원: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 짧은 여행, 긴 호흡 기획분야 비전여행에 선정된 여성공익활동가 23명이 6월25일~7월1일 4박6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 자바섬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지는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의 보로부르 사원, 화산 트레킹, 온천체험 등으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자연환경과 문화를 체험했다. 여행에 참여한 활동가들은 잠시나마 현장 활동의 고단함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을 돌아보고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의 비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영감을 얻는 기회를 가졌다.



양육미혼모 행복 만들기 <Mom-up project> 협약식 개최

지난 5월31일, 한국여성재단(이혜경 이사장)과 이케아 코리아(안드레 슈미트 대표)는 양육미혼모들의 사회적 자립을 돕고 이들의 자녀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양육미혼모 행복만들기 Mom-up project(후원:이케아 코리아)>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Mom-up project>는 총 1억원 규모로 서울/경기권에 거주하는 양육미혼모 30가정에 주거환경(공부방) 개선 및 지원, 양육미혼모 가정간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는 정기적인 자조모임, 오피니싱 워크숍(오피니싱 솔루션 소개 및 컨설팅)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이케아 취업 안내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 참여가족 선발

2017년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 Twinkle Together Project(후원:하나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된다. 이번 모국방문에 참여할 가족모집을 지난 4월에 시작, 6월에 최종 18가정 66명을 선발하였다. 사전프로그램은 8월 5~6일까지 충남아산 교원도교연수원에서 진행되고 이후 현지프로그램은 8박10일의 일정으로 9월1일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미래포럼,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의 이해> 개최

미래포럼은 7월10일, 유니베라(본사) C&S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의 이해”라는 주제로 사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의 강연을 개최했다. 정영애 서울사이버대학교 부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테크놀로지와 사회변동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였다. 강연에서는 1960년대에 시작된 시의 불과 빅 웨이브, 정보화와 지능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지능정보기술 발전이 가져올 새로운 사회의 특징과 메가트렌드, 지능정보사회에서 개인의 삶의 변화 중 특히 일과 삶과 힘의 균형 문제가 다루어졌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와 역할에 이르기까지 광의의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 관한 중요한 이슈가 제시되었다. 또한 포럼 참가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하여 다양한 시사점을 모색해보는 귀한 학습의 시간이었다.



<공간문화개선사업> 선정 단체 발표 및 사업설명회 개최

여성단체 및 시설의 공간을 개선하여 소외계층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공간문화개선사업(후원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2017년 지원 선정 단체가 발표되었다. 지난 4월 전국 공모를 통해 총 86개 단체가 지원하였고, 그 중 대안 공간으로서의 역할과 효과성,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종 9개 단체가 선정되었다. 선정 단체는 이주여성, 저소득 한부모 가정, 비정규직여성, 장애여성, 지역여성, 성/가정폭력 피해자, 위기청소년 그리고 아동들을 위한 단체 및 시설들로, 지난 6월29일 사업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공간의 유형과 주 이용자,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공간컨설팅을 거쳐 열악한 노후 시설개선 공사가 진행되며 이후 지속적인 사후관리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공간문화개선사업>은 2009년~2016년까지 총 106개 단체의 공간개선을 지원하였다.



아시아여성재단네트워크(ANWF) 지역회의 참가

한국여성재단은 지난 6월 12~14일 2박 3일간 홍콩에서 진행된 아시아여성재단네트워크(Asian Network of Women's Funds, 이하 ANWF) 지역회의에 참가하였다. ANWF는 한국여성재단처럼 여성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전 세계 여성재단 38개가 회원으로 구성된 Prospera 세계여성재단네트워크의 아시아 단위이다. ANWF는 현재, 한국여성재단과 홍콩 Her Fund, 몽골 MOVES, 남아시아 지역 기반 SAWF, 태국 TEWA 총 5개 나라 및 지역 재단이 소속되어 있다. SAWF는 매년 연례 지역회의를 열어 각 재단의 현황을 서로 공유하고 공동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올해는 각 재단별로 상임이사와 직원 총 2명이 참석했으며 Mama Cash와 Global Fund for Women(GFW) 같은 여성재단단체를 지원하는 세계기금재단 담당자들도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각 재단 대표들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2017년 지역 협력을 위한 전략과 실행 계획, 2020년까지 향후 3개년 전략 계획 및 과제를 도출하고 ANWF의 새 이름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여성재단은 한국여성민우회와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파트너 단체들의 활동을 소개하였다.

수입 Income

항목	내용	금액(원)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단체 등 국내외 지정기탁 사업지원 및 물품기부 등	1,557,734,058
성평등사회조성기부금	100인기부 릴레이 기부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SOS캠페인(폭력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 만들기) 일터(가게)나눔 동전나눔 해피빈 카드포인트 기부 등	193,054,372
여성건강지원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56,612,000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등	28,000,000
운영후원금	개인, 기관의 한국여성재단 협찬 등	20,370,000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 캐쉬SOS상환기금 등	94,968,459
총수입		1,950,738,889



- 기업지정기부금 79.9%
- 성평등사회조성기부금 9.9%
- 여성건강지원기부금 2.9%
- 특정명의기금 1.4%
- 운영후원금 1.0%
- 기타수입 4.9%

지출 Expense

구분	항목	내용	금액(원)
고유 목적 사업비	모금사업비	모금행사, 기부자관리 등	17,033,569
	배분사업비	1. 소외여성 empowerment 사업 - 여성가장 및 활동가, 임파워계 희망을 건강지원사업(기모금) - 다문화이동 외국어문 지원사업(공동모금회-삼성생명, 하나금융) - 봄빛장학금(봄빛기금) - 히모니프로젝트(ECMD) - 임파워먼트 통합 캠페인(칼락스재단) - 임파워먼트 건강개선사업(무른내일을여는여성들)	684,705,404
	홍보사업비	2. 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 - 여성NGO장학사업(유한컴퍼니) -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캐쉬SOS상환기금) - 여성공익활동가 임프로젝트-젊은여행 - 간호협(고보생명) - 공간문화개선사업(마오레퍼시픽복지재단)	
	경상비	3. 성평등사회조성사업(개인모금)	
	사실비	4. 사회적돌봄사업 - 안전한심야돌봄터(교육희망상환기금)	
운영비	홍보사업비	소식지,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14,971,675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208,865,194
	사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17,826,120
총지출			943,401,962



- 모금사업비 1.8%
- 배분사업비 72.6%
- 홍보사업비 1.6%
- 경상비 22.1%
- 사실비 1.9%

1% 나눴이 모여 100% 희망이 됩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성평등 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전국여성단체와 공익활동가들을 지원합니다.
1%나눔을 통한 모든 기부금은 한국여성재단의
「성평등 사회 만들기」에 지원합니다.



▲ 나눔 실천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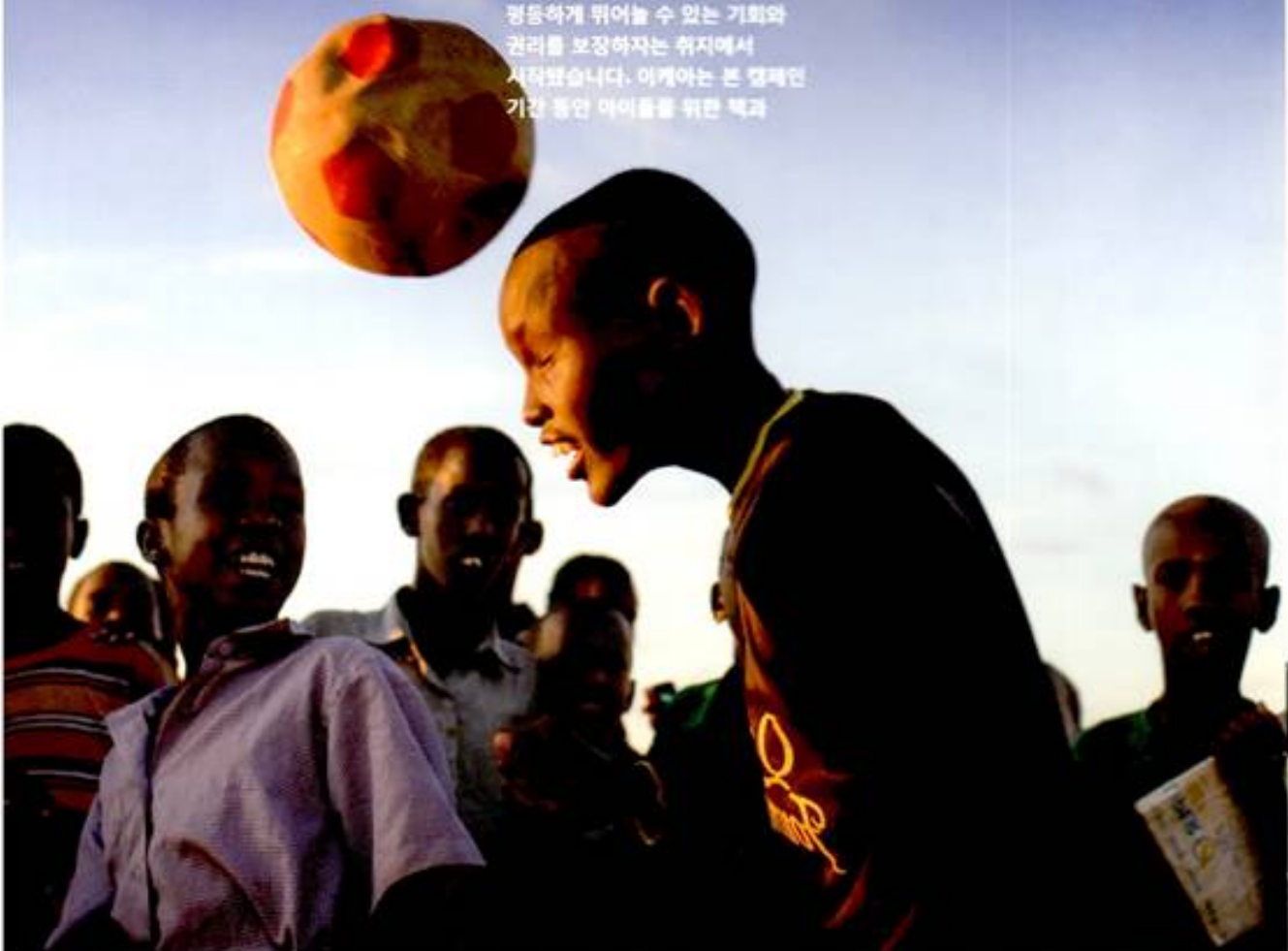
▲ 나눔 실천사례

친구들과 마음껏 놀고 싶어요!

세상의 모든 아이는 마음껏 뛰어놀 권리를 동등하게 누려야 해요.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신감을 얻고, 성장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회공헌조직 이케아 재단 (IKEA Foundation)은 전세계 많은 아이들을 위해 새로운 좋은 세상 만들기 캠페인 '세상을 바꾸는 놀이(Let's Play for Change)'를 선보였으며, 올해에도 진행 예정입니다. 이 캠페인은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성공적으로 열린 '소프트포이 캠페인'의 새로운 형태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대로 전세계 어린이들이 평등하게 뛰어놀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케아는 본 캠페인 기간 동안 아이들을 위한 책과

장난감이 판매될 때마다 1유로를 기부, 이를 통해 조성된 기금을 전세계 빈곤 지역의 어린이들도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뛰어 놀며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유니세프, 세이브더칠드런 등 6개의 아동 인권 전문 기관과 함께했으며 5주간의 캠페인 진행 결과, 총 2천1백50만 유로가 기부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케아 재단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www.IKEAfoundation.org



IKEA Foundation

